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가정예배를 살리자

가정예배는 가정 영적 상태의 시금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줘
중현 가정의 60%가 가정예배 드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예배의식과 실천현황은 어떠한가? 가정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정의 영적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가정 신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정예배가 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지난 9월 20일에는 '중현만나'를 집필하는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가정예배 세우기 좌담회'가 열린 바 있다(5면 참조). 그리고 지난 10월 1일에 있었던 '구역장 영성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참여한 구역장 6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예배 세우기 설문조사'가 있었다. 이에, 중현의 온 가정들이 가정예배를 통하여 영성이 넘치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바른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신는다. 응답자는 총 372명이었으나, 응답자 전원이 교회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역장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설문지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정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중 29.2%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정예배가 불규칙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응답은 32.5%, 거의 못드린다가 23.4%, 그리고 전혀 못드린다가 14%에 달했다. 그리고 응답한 구역장들 중 75%에 달하는 사람이 자기 구역 식구들의 가정예배 현황에 대하여 '불규칙하게 드려거나 거의 못드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 각

가정의 가정예배는 예상에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실적으로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비해, 응답자 대부분인

91.2%가 '가정예배는

가정의 영적 상

태에 결정적

으로, 혹은

적지 않은

관

련 이

있다'

는 항

목 에

동의 를

표시했다.

뿐만 아니

라, 90.6%가 가

정예배가 자녀들의

영적 성숙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87.3%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부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결정적인

혹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이러한 답변의 편차는 마음

으로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절감하면

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가정예배

드리기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계속해

오고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음을 반영

해 준다.

그러면, 가정예배를 불규칙하게 혹

은 제대로 못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가족들 모두가 바쁘기 때

문'이 37.2%로 가장 많았고,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10.7%로 두 번째 이유를 차지했다. 가정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 대부분이 아마도 '피차에 바쁘기 때문'이라는 응답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예배가 가정

의 영적 상황과

교회에서 드

리는 예배

에 결정

적 인

영 향

을 준

다 는

사 실

에 진심

으로 동

의 한다면,

가정예배를 삶

의 우선적인 일에

재배치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10월 12일 새가족환영회

오전 10시 30분, 갈릴라홀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새가족환영회가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갈릴라홀에서 열린다. 참석 대상은 새가족과 새가족 인도자, 교구장, 교역자, 지역장, 교구일꾼이다.

1교구 남성도 모임

10월 7일 만나홀에서

1교구에서는 오는 10월 7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남성도 교구 모임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남성도 들만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어왔는데 이번 모임을 계기로 1교구에서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을 통해 남성도들이 좀더 말씀과 기도로 활기찬 신앙 생활을 해나가고 남성도들간에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교구 및 교회 부흥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7교구 일꾼 영성훈련

10월 6일 중현기도원에서

7교구에서는 10월 6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중현기도원에서 일꾼영성훈련을 실시한다. 특강, 기도회를 통하여 충성된 일꾼으로서 헌신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수요2부예배 시간 조정

10월 8일부터 오후 7시로

10월 8일부터는 수요2부 예배시간이 종전 7시 30분에서 7시로 30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수개월간 계속된 7시 30분 예배에 익숙했던 몸을 추스려서, 시간에 늦지 않도록 더욱 서둘러 준비해야겠다. 교회적으로 '온전한 예배드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요즈음, 이 예배시간의 변경이 더욱 우리들로 하여금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10월 15일 교회 주변 대청소

10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에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날이다. 현재 청소에 참여할 예상 인원은 약 400여명으로, 이들은 각 교구별로 추천되어 모임에 된다. 대청소는 교회를 중심으로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교구 책임하에 실시하게 된다.

이날 청소는 수요1부 예배 후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 후 실시하게 된다. 이날 대청소를 통하여 교회 앞마당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9일 군목세미나 은혜 중 마쳐

지난 9월 29일(월)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는 본교단 군목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군목과 사모 약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오전 예배, 오후 자체 세미나 및 사모상담세미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상면 목사의 사회와 강은원 장로의 기도로 진행된 오전 예배에서 김성관 담임목사는 교별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면서, "바로 이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군에 있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자체세미나

시간에는 군목 사모들만 따로 모여 김희수 목사의 강의로 '사모상담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2,300여만원의 재정을 들여 컴퓨터 14대와 커피, 76상자 등을 지원했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계획 성취의 확실성

(이사야 7:10-25)

본 문에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유다 땅 베들레헬을 침략해 왔으나 첫번째 침략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했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는 계획을 하고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자면서 동맹을 체결하고 또다시 쳐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은 부들부들 떨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수들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동안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만 하면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격려와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1)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사 7:10-13)

이사야 선지자는 격려와 경계의 말씀(사 7:4하, 9)을 끝낸 후, “임금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의 이스라엘과 아람의 세력이 깨어져 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징조 하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방 왕의 계획이 모두 무너질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장 징조를 보여 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니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 징조를 주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드온을 들어 쓰실 때도 젖은 양털과 마른 양털을 징조로 보여 주심으로써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셨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도 해를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보여 주심으로써 죽을 앞에서 통곡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앗수르에게 지원을 청해 북방 두 동맹국의 침략에 대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 주든지 안 보여 주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순종하고 기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는 징조를 보여 주셨습니다(14-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이 징조입니다. 여기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란 그 아기가 철이 들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철이 들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상아로 화려하게 궁궐을 지었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사마리아보다 더 웅장하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기 전에 두 나라가 모두 망하여 그들이 자랑하던 수도인 사마리아와 다메섹에 풀이 무성해져서 그 풀들을 먹은 소와 양이 살이 찌면 젖이 많이 나서 남은 백성이 우유를 실컷 먹고도 남아서 버터를 만들어 먹을 정도가 되리라는 말입니다. 또 그 망해 버린 땅에 들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꿀벌이 사방에 꿀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때에 죽다 남은 자들이 꿀을 먹으리라는 말입니다.

2. 유다 민족이 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다도 같은 재앙을 받고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했으니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에게는 망하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징계하여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의 계획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 앗수르의 파리와 앗수르의 벌을 불러 유다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18, 19절)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먼 나라 앗수르에서 군대를 청병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고 하였으나 유다는 별수 없이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① 앗수르의 파리를 불러 유다를 망하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은 기한 전에 망할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파리가 몇 백억 마리가 날아온다는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섬기는데 그 중에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마 10:25 참고). 바알세불은 파리귀신이라는 뜻으로 모든 신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파리가 날아온다는 말은 파리귀신을 섬기는 더러운 무리들이 유다 땅에 쳐들어 와서 점령하겠다는 말입니다.

② 앗수르 땅의 벌을 불러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앗수르 땅의 벌’은 앗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앗수르 군대는 벌떼와 같이 규율이 정연하고 부지런합니다. 일벌이 나갔다가 꿀을 못 가지고 집으로 오면 수문장 벌이 당장 목을 잘라 죽여 버립니다. 또한 꿀벌은 자기를 건드리는 자에게 날아가서 쏘고는 자기는 죽습니다. 꿀벌세계가 이렇게 규율이 엄하고 부지런하고 결사적인 것처럼, 앗수르 군대도 규율이 엄하고 일을 부지런히 하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결사대입니다. 그래서 앗수르의 벌떼를 불러 온다는 말은 규율이 엄격한 앗수르의 결사대를 청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거침없이 유다 땅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과 아람과 싸워 주었으면 좋겠는데 유다가 망쳐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앗수르에게 구했으니 이제 앗수르와 실컷 싸워 보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 앗수르의 삭도로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지평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3) 농토는 황폐케 하여 목장이 되게

하십니다(21, 22절)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는 말씀은 유다가 아주 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때에는 앗수르의 벌떼와 같은 군대에게 쏘여 유다가 망하여 남은 사람이 극히 적고 사방에 수풀이 무성하여졌고 암소한 마리와 양 두 마리만 키우는 데도 젖을 못 다 먹으리만큼 남아서 버터를 만들어 먹어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4) 포도원은 질러로 화하게 하십니다(23-25절)

포도나무 천 주에 은 천 개를 주어야 살 정도의 포도원이니 얼마나 좋은 포도원입니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은 천개를 주어야 살 정도의 좋은 포도원을 질러와 가시나무로 덮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고 이방나라 애굽과 앗수르를 끌어 들였으니 불가불 애굽 사람에게 혼이 나고 앗수르 사람에게 아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집니까? 원수 동맹국의 계획도 무너지고 유다가 앗수르와 동맹하여 이겨 보려는 계획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때릴 때에 회개하지 않고, 두 번 때릴 때에 회개하지 않고 세 번 때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아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렇지 않고 거역하는 자의 영육은 불쌍해질 것입니다.

※ 바로 잡습니다. 438호 2면 네번째 단 위에서 15번째의 “노아의 열 식구”를 “노아의 여덟 식구”로 고칩니다.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THE RICH MAN AND LAZARUS

(Luke 16:19-31)

Many Christians still view the promise of God's blessing for observance of His statutes in a worldly manner. They evaluate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 terms of outward circumstances. If everything is fine, one is basking in God's favor. If one is ill or oppressed or poor, one is under God's curse or punishment and needs to repent of sin. While both situations may indeed render true,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at often our faith in God is in spite of circumstances, not because of them.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emphasizes this point. It is a sermon by Jesus that teaches us to view the promise of God's blessing for our faith and obedience in a godly manner. It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earthly and heavenly treasures. It reveals the mystery of the inward circumstances of the heart.

The lesson begins, "Now there was a rich man, and he habitually dressed in purple and fine linen, joyously living in splendor every day" (vs. 19). This whole verse contains beautiful words to describe a perfect life. The man is very wealthy, he dresses in the finest of clothes everyday, and lives happily in his luxury. Life was one continual party for him. Everybody respects and likes him. He doesn't experience the pains and struggles of servanthood. His money provides the glory of his joy. The outward circumstances harmonize with the ideal of heaven. Truly, this epitomizes the world's idea of a 'good life'!

"And a poor man named Lazarus was laid at his gate, covered with sores, and longing to be fed with the crumbs which were falling from the rich man's table; besides, even the dogs were coming and licking his sores" (vss. 20-21). Lazarus was cursed with sickness and oppression, he was forced to beg for his food. Obviously, the rich man's happy house gave food to the poor or else Lazarus would have sought mercy elsewhere. He received sympathy but not empathy from the rich man. He was in such dire straits that dogs licked his wounds. Unlike the happy rich man, Lazarus experienced daily sorrow, sadness, and suffering.

Our society views the rich man as good and the poor man as bad. They respect the rich man and honor his kind efforts to the poor. He is judged as a nice rich man. Even Christians look upon him as blessed by God. The poor man is looked down as dirt. He receives no respect and is treated like an animal. He is judged as a bad person who deserves unfavorable treatment. So too do Christians look down him as cursed by God.

Thankfully, God sees into the heart of each person. "Now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away by the angels to Abraham's bosom; and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vs. 22). The beggar was carried away by God's angels beside Abraham, the father of all the righteous. He enjoyed immediate bliss at the moment of physical death. The rich man was carried away by humans, given a respectable funeral, and buried. The beggar didn't get an honorable funeral but the rich man surely did!

The point is that life is short! Jesus sees our earthly time as smaller than a tiny speck of dust. These passages should open our eyes and hearts to the real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temporal and the eternal. Earthly life is temporary. Our time here is not meant for us to wallow in earthly treasures. God makes us and prepares us for eternal relationship with Him. Our time here should be spent in getting to know Jesus, living for Jesus, and sharing that faith with others. Our Christian rewards and treasures are not of this world. Thank God, our rewards and treasures are stored in heaven.

"In Hades he lifted up his eyes, being in torment, and saw Abraham far away and Lazarus in his bosom" (vs. 23). The reality and torment of hell is clearly shown here. There is only two places, heaven and hell, in which the dead go. There is no choice after death. There is no second chance. The righteous are taken to heaven and the wicked are placed in hell. Both places are eternal. Heaven is eternal joy and hell is eternal punishment.

There is only way to heaven and no other. The way is Jesus. Faith in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19-31)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게 되는 축복의 약속을 아직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인 상황들로 평가합니다. 만일 모든 일이 잘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고, 만일 아프거나, 질병을 받거나, 가난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받고 있어서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마음의 내적인 상태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19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대단히 부유하여서 날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은 지속되는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는 종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투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가 소유한 엄청난 돈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그의 외적인 상황은 천국의 이상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의 삶은 이 세상이 동경하는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현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20-21절) 나사로는 질병과 고난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먹을 음식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부자의 집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다른 곳에서 음식을 구걸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동정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행복한 부자와는 달리 나사로는 날마다 슬픔과 비애와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부자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가난한 자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하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의 천절한 노력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는 좋은 부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여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쓰레기처럼 경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존경을 받기 커녕 마치 짐승처럼 취급됩니다. 그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듯이 경멸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2절) 그 거지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죽자마자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죽자 사람들이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부자와 같은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하나의 편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땅의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차이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상급과 보화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과 보화는 하늘에 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3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지옥의 실체와 고통이 어떠한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두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며 악인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 곳은 다 영원히 존속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Jesus Christ opens the gateway to heaven; so that all who truly believe can enter. So th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of our human life are Jesus and faith.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Whoever does not carry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26-27). Christians must deny everything and everyone, most importantly the self, in order to be a true Christian - a true follower of Jesus. Faith in Jesus is a whole-hearted way of life; not a half-hearted adventure. Jesus must be number one in our lives; He must come first in everything!

To live a Christ-centered life requires dropping our will and way and letting the Holy Spirit guide and direct our steps. "So then, none of you can be My disciple who does not give up all his own possessions" (Luke 14:33). Jesus is everything. So called Christians who value and hold on to their wealth, family, and even well-being more than Jesus are in the same category as the unsaved. Listen to the Word of God. Hear what is being said. One can go to church every Sunday, tithe regularly, pray everyday, help the poor, and still go to hell. It's not the outward circumstances that saves; it's the contents of our hearts in relation to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If the answer is yes, then your heart and lifestyle will reflect His grace and mercy. He will be the living center of your existence.

"And he cried out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so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off my tongue, for I am in agony in this flame'" (vs. 24). The rich man calls Abraham 'father'. Now he asks for grace and mercy. He thinks mercy can be given through other people.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during your life you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ikewise Lazarus bad things; but now he is being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gony'" (vs. 25). The rich man got what he deserved. His reward was temporary and short-lived pleasure just as the poor man's agony was temporary and short lived. The rich man had his heaven here on earth; he experienced joy and splendor everyday. His treasure was money and the nice things that it provided him. He got caught-up in the pleasure for the moment and lost sight of the eternal. The poor man did not place his hope in the world; the world was cruel and harsh to him. He persevered with the hope of better things to come in life after death. His pleasure was in the eternal.

It's extremely difficult for a rich man to enter heaven because he has to give up everything here on earth. He has to drop the pleasure treasure of now for the treasure of forever. It's like asking a child to give back the chocolate you just gave him for the promise of more chocolate later. Very few elect to wait till later. And the sad truth is, just as the Pharisees were lovers of money and scoffers of Jesus (vs. 14), so too are those who choose to live for the people and things of this world.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chasm fixed, so that those who wish to come over from here to you will not be able, and that none may cross over from there to us" (vs. 26). There is no transportation between heaven and hell. They are irreversible and eternal destinies.

"And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that you send him to my father's house—for I have five brothers—in order that he may warn them, so that they will not also come to this place of torment'" (vss. 27-28). The rich man desperately tries to act like a good man. He thinks he can redeem himself from Hades. He thinks that he is smarter than God.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But he said,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But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vss. 29-31). People who ignore the written Word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ose from the dead as Jesus did. God's hand is at work in our lives. We have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If we don't listen to God's strong messages - if we don't humble ourselves - if we aren't truly born again - we will not be partakers of eternal life.

When Jesus raised Lazarus of Bethany from the dead, the reaction of the Pharisees and chief priests was to kill him (John 11:43-46; 53). Abraham's words to the rich man are absolutely true. The people that followed Jesus and witnessed His many miracles were the ones who cried out, "Away with Him, away with Him, crucify Him!" Pilate said to them, "Shall I crucify your king?" The chief priests answered, "We have no king but Caesar" (John 19:15). Can you believe it? The chief priests knew and taught the Jewish people that God was their only king. But here they cry out that they have no king but Caesar.

The two men in this story illustrate two different lives, two different deaths, and two different destinies. Jesus tells us,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charity; make yourselves money belts which do not wear out, an unfailing treasure in heaven, where no thief comes near nor moth destroys.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uke 12:33-34). Let our treasure always be Jesus. Let us remember that the world's treasures are only temporary but God's are eternal.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 주기에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예수님과 믿음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26-27).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과 모든 이들을 거부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삶을 전심으로 사는 것이지 반신반의하는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첫 번째의 우선 순위가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의지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기의 재물과 가족, 그리고 행복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십일조를 드리며, 매일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울지라도 그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의 관계로 말미암은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과 삶의 방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실 것입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노이다" (24절)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긍휼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5절) 부자는 그가 받을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잠시의 고통이었듯이 그의 상급 또한 일시적이며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위에서 천국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기쁨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돈과 돈이 제공하는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쾌락에 한눈을 팔다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에게 잔인하고 무정했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그가 누리게 될 보다 좋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보화를 위하여 지금 기쁨을 주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더 많은 초코렛을 줄테니 지금 가진 초코렛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중까지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바리새인들(14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6절)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곳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종착역들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7-28절) 부자는 자기가 선한 사람인 듯이 행동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지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9-31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 만일 우리 스스로가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 만일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 우리들은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요 11:43-46, 53).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였던 말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으며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소리치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 19:15)라고 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으십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외쳐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들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다른 두 종류의 죽음, 그리고 다른 두 종류의 운명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들어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33-34). 우리의 보화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보화들은 단지 일시적이거나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 가정예배 세우기 좌담회 ✿

가정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을 통해 바른 신앙이 전수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가 삽니다.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면 가정예배도 삽니다. 이 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9월 20일 주간충현 편집실에서 가진 '가정예배 세우기 좌담회'의 내용을 실습니다.

예배로 세워지는 충현의 가정들

좌담회 참석자: 현상민(목사, 11교구·예배위원회 지도)
한근수(목사, 대학부·청년교구 지도)
김동석(목사, 청년1부 지도)
김필수(목사, 13교구 지도)
전형준(목사, 12교구·중등1부 지도)
이형수(집사, 출판국 편집장, 청년1부 부감)
사회: 정갑신(목사, 출판국·중등2부 지도)

정갑신: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준비로 이번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좌담회를 통해서 우리 충현의 각 가정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나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전수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예배의 기원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를 들면 가정과 노동, 그리고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구원사의 통로로써 '최소의 교회 단위'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습니다. 에덴이 그러했고, 족장시대가 그러했고,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가정교회'라는 말이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이 전수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장으로써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되지 않았던 직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던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아담이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듯이,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바른 신앙 전수의 사명이 가장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석: 저는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의 장이 바로 청교도들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하루에 두 번 아침(하루를 내다보며), 저녁(하루를 정리하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도 말씀 암송과 묵상 그리고 기도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 전체가 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각 가정들에 이러한 모범 혹은 모델이 제시되어 신명기 6장에서 말씀되고 있듯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바른 신앙의 전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갑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새벽기도회와 금요철야는 매우 강조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정예배에 대한 강조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겠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가 한국 교회에 기여한 영향이 있다면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준: 주디 골만이라는 분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가정 사이에는 경쟁심이 있어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아니면 가정 어느 둘 중 하나를 과도하게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상호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인의 숫자를 중요시하는 물량주의적 성장에 관심을 집중해온 나머지, 상대적으로 가정에 대한 관심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다고 보여집니다. 기독교계 잡지를 보더라도 1년 중 5월 한달 정도나 가정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가정예배가 잘 드러지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중 이혼하는 가정은 미국의 경우 두 가정당 한 가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섯 가정당 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가정 중 이혼하는 가정은 40가정당 한 가정이고, 이들중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 중 이혼하는 가정은 400가정당 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김필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실제의 예배 내용은 어떤데간에 '중앙성소에 집착하는 의식'은 대단히 강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하지만, 가정을 배려하고, 가정을 포용하면서 성장해가는 교회라야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가정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이나, 온 교우들의 모임을 '한 피 받아 한 몸'이론 형제들'로 묘사한 것이나,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 등을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철저히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요리문답서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진술일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인정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요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예배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가정예배, 특히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순교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배출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갑신: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두 자녀를 신앙적으로 썩 잘 키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직분자나 교역자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상민: 제 경우를 보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목회자인 아버님의 지엄하신 눈빛에 굴복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역자의 자녀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결국은 가정예배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기 싫어했던 예배를 통해서도 나를 꾸준히 다루어 가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예배의 질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위해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가정에 투자하겠다"고 말할 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무엘의 가정뿐 아니라 아담 가정의 실패 역시 가정예배의 실패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동석: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서 가정예배드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불신자 남편을 가진 크리스천 아내의 가정 내 영향력이 극소화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과격하게 반대하는 경우에 가정예배를 강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들을 고려한다면, 가정예배라는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근수: 저도 공감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가지도록 애를 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갑신: 우리 교회 각 가정의 가정예배 상황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현상민: 결정적인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심방을 통해서 적지 않은 가정들이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방예배를 드리는 중 아이들을 제외시킨 다든지, 혹은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예배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요. 평소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아이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쨌거나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안되면, 그것이 교회학교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배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에 어른들이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들처럼, 1년에 몇차례 정도는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대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차원에서 배려할 수도 있겠지요.

정갑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가정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적 차원에서 배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필수: 교회가 각 가정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목회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교문화'의 부정적인 뿌리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도 교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형수: 저는 가정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에서 바른 신앙의 전수가 계속된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아버지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소수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평신도 남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구역장의 100%가 여성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들의 건전한 영적 권위가 세워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들이 건강한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정에서의 바른 예배와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배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준: 가정을 파괴시켜 영적 흐름을 막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기독교 활동 중 가정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교회에서도 이런 좌담회를 기점으로 가정예배를 살리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가정사역'에 더 한층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갑신: 장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수첩

외국인 근로자 위한 의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눠 줄 추동의류를 수집하고 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가는 이때에 2억만리 타국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데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깨끗하게 손질된 의류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며 수집 장소는 선교관 406호(교환 351)이다.

유아부 찬송가 부르기대회

지난 9월 28일 유아부에서는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열어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찬양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나누었다. 유아부에서는 매달 한국곡의 찬양을 배워왔는데 이 곡들 가운데 선곡하여 간단한 악기들도 함께 연주하였으며 직접 만든 장신구들도 준비하여 솜씨를 자랑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초등부 교사특강 실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갖는 계기

초등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교육관 310호에서 '교사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교사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강에서 강사 한승일 전도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학생들의 신앙 교

육을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중등1부 요절암송대회 가저

중등1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요절 암송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반별과 개인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범위는 공과 1~30과까지의 요절을 암송하는 것이었다.

반별대회는 예배 후에 각 과별로 나누어져 실시되었고 1명마다 최대 5절을 외웠으며 교사도 한 절을 암송하면 가산점을 주었다. 그래서 요절 평균 점수와 출석 점수, 교사 암송 점수를 합하여 등위를 결정하였다. 반별대회가 끝난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1~30과 요절 전체를 암송하는 개인별 대회도 가졌다.



장년부 성경퀴즈대회 실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8일 장년1부에서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하였다.



좌석을 A, B 둘로 나누어서 한 문제 이상 맞춘 회원들에게는 참가상을 주고 다섯 문제 이상 맞춘 회원들은 따로 실력을 겨루는 등수를 가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장년2부 성경암송대회 말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

장년2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 희망자에 한하여 한달 동안 갈라디아서 5장을 암송하도록 했는데 참가자는 모두 15명이었다. 참가자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에바다부 주기도문·사도신경 암송대회

지난 주일 에바다부에서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송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에서 학생반은 주기도문을, 성인반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수화로 암송했다.

이곳에서는 ...

▶ 소년부에서는 오늘(10월 3일) 3학기(27-39과) 성경교사를 실시한다.

▶ 베드로1지회에서는 오는 10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본당 앞마당에서 부부동반 체육대회 및 율예회를 갖는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사진 찍으세요

- 찍는 곳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는 교구
1997년 10월 5일 : 12교구
1997년 10월 12일 : 13교구
- 찍을 사람
원로, 은퇴, 사무장로 / 교역자 /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사무권사 /
담녀 서리집사

◆ 홍콩 우두각 교회를 다녀와서 ◆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박승준
(장로, 감사위원장)

'광활한 중국 대륙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교위원장 노광원 장로를 단장으로, 마성락 장로와 함께 9월 1일 홍콩으로 떠났다.

2년 전에 중국인 선교를 목표로 설립한 우두각교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수속의 일로 당회가 선정한 현지법인 이사 3인의 장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홍콩은 인구 6,159,000명(1995년 기준) 중 중국 토착종교가 66%, 홍콩도교의 불교사원 3.6%, 개신교 8.5%, 가톨릭 4.8%, 무종교 15.2%, 신흥종교 3.6%, 회교 1%(주로 인도계)의 종교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에 도착하여 김은태 선교사의 인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리 높혀 오랜 시간 동안 합심기도를 드린 후 교회 인근 주변의 상가 주거지(서민아파트)를 살펴 보면서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달동네로 비유할 수 있는 비교적 저소득계층의 집단주거지(아파트)인 구룡야야말로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확신을 하기도 했다. '불타는 대륙 비전 1번지'라고나 할까 ...

우두각교회의 현재 주일 출석은 장년이 20명, 청소년이 10명으로 모두가 현지 중국인들이다. 교회라고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다.

주일이면 협소한 예배실에서 네 반으로 나뉘어 분반공부와 모든 활동을 해야 하기에 불편함은 말할 수가 없다.

화장실과 세면실을 빼면 10평 안팎이니 우리나라 소형 아파트 거실에 비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더군다나 한화로 매월 8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선교활동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나마도 금년 12월이면 2년 만기로 비워 주어야 될 형편이다.

김 선교사는 홍콩을 통하여 중국 본토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다. 뜨겁게 매 순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김은태 선교사의 선교 의지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를 기뻐 받으시고 새 예배처소도 마련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현재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고 있는데 30여평되는 상가 건물로 20만불 정도면 임대 아닌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현의 전 교인이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두각교회의 새 예배처소 30여평을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기도해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당회 차원의 큰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대륙을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선교의 문을 두드리자. 선교의 교두보로 홍콩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제언하고 싶다. 선교 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요청한다. 선교와 이민 목회의 분리 문제-이민 목회는 기존의 한인교회에 맡기고 중현의 선교는 오직 현지인 선교에만 전념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더욱 깊게 느꼈다.

훈련소에서 영적 생일 맞은 3,370명의 젊은이들

지난 9월 27일(토) 논산훈련소에서는 3,370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이 열렸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된 이번 세례식은 세례받은 훈련병들에게는 물론이고, 섬기려 간 모든 중현의 식구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 행사가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목사 12명, 장로 14명 외에 호산나 찬양대 및 군전도회 일꾼 등 150여명이 함께 하였는데, 특히 모든 참가자들은 훈련소장(소장 정화인)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바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그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 태어난 모든 훈련병들은 군생활이 끝나기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오늘 받은 성경책을 반드시 한 편이상 읽고서 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호소하였다. 이 감동을 돌아오는 길에 신단진 하늘에 뜬 쌍무지개로 인하여 더욱 인상깊게 남았다. 매년 약 12-20만명의 젊은이가 거쳐가는 막대한 선교어장인 이 논산훈련소를 통하여, 젊은이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온 교회는 실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훈련병들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